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분석 연구*

이형래**

< 차 례 >

- I. 서론
- II. 직업문식성의 개념과 특성
- III.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 IV.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문항 분석
- V.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에 관한 논의
- VI. 결론

I. 서론

학교 행정실 직원 ○○씨는 최근 교원 복지 관련 연수를 상위 기관에서 받고 와서 걱정이다. 교직원들에게 전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어떻게 연수를 하나 고민이다. 결국 연수를 받을 때 나눠준 자료를 학교 이름만 넣고 그대로 다시 인쇄하여 나눠준 뒤 참고하라고 하였다. ○○씨는 자료를 요약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이형래, 2006 : 4).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8회 학술발표대회(2007. 12.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독서지도학과

공무원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평가이다. 그러나 현행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문법과 문학 중심의 평가 체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회사원에게도 직업문식성이 요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획 문서작성,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직업기초능력 중 중요도가 높다. 기획문서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과 직결된다. 기획문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행위는 통합적으로 일어난다(이형래, 2005 : 91). 직무 지식, 직무 태도,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과 같은 직무 능력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실행되는 것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공무원, 회사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다. 직장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국어능력과 직무수행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이형래, 2007 : 88~95).

이 연구에서는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을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평가로 규정하였다. 직업문식성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¹⁾²⁾이다. 일상적인 국어 능력과는 달리 한 개인의 능력으로서의

1) 이 연구에서는 직업문식성을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관점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 현상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도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의 측면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문식성을 생산성 향상, 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측면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2) 지금까지 글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중심으로 문식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식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볼 때, 읽기와 쓰기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듣기와 말하기 능력도 직업문식성의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듣기와 말하기가 문자 언어가 아닌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읽기, 쓰기와 분명 구별되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개인의 문식성 형성과 확장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문식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문자 매체의 '사

직업문식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으로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직무수행자에게는 필수적인 자질이다(Kearn, Papadopoulos, 2000 : 35). 국어 사용 능력이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면, 직업문식성은 직무 상황과 밀착되어 있다. 법률문서, 공문서를 읽고 작성하는 것과 백화점 상품 전단이나 카드 대금 명세서를 읽거나 편지를 쓰는 일상 문식 활동과는 차이가 난다.

공무원의 업무 분석 결과, 공무원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이형래, 2005 : 255~256 ; 이형래, 2006 : 106~121 ; 국립국어원, 2004 : 74). 따라서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을 직업문식성 평가로 규정하고,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이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문항 분석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직업문식성의 개념과 특성

1. 직업문식성의 개념

‘직업문식성(職業文識性, job literacy)³⁾’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용’을 강조할 경우, 문식성은 분명 읽기와 쓰기와만 관련된다. 그러나 사용을 통해 형성되는 ‘문식(畵)’을 강조할 경우, 듣기와 말하기도 문식성과 관련된다.

- 3) Harris와 Hodges(1995 : 140~143)는 사회적·역사적 변화와 관련하여 문식성의 개념을 ‘읽기 능력’, ‘읽기와 쓰기 능력’, ‘사회 집단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수행능력’, ‘개인의 자유 추구 전략’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직업문식성의 개념을 규정하면, 첫째, 직업문식성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이다. 둘째, 직업문식성은 직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사용 현상이다. 셋째, 직업문식성은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넷째, 직업문식성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수행 능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문식성을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직업문식성은 그러한 능력의 요체이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은 직업 수행 능력의 근간이 된다.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직업문식성으로 규정하였다.

문식성은 글과 읽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개인의 인지에 구성되는 문식성은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개인과 사회 또는 사회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됨으로써 문식성은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람들은 읽고 쓰는 사회 현상을 통해 문식성의 존재를 확인한다. 각 개인의 문식성은 사회적 문식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글은 개인과 사회의 문식화(文識化)를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식화된 개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문식성을 더 심화, 확장시킨다.

문식성의 개념은 글과 개인의 읽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식 사회 속에서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되고 있다(이천희, 2007 : 45). 문식 행위가 문자를 매개로 한 의미구성,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해와 표현을 통한 읽을 추구한다. 따라서 문자를 통한 의미구성의 본질은 읽의 소통에 있다. 이 때문에 문식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다. 다섯째, 직업문식성은 한 인간이 직무 수행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첫째와 셋째, 넷째는 직업문식성에 대한 능력관을 반영한 개념이다. 첫째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직업문식성으로 규정한 것이고, 셋째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기능과 지식의 소유를 사회와 관련지어 직업문식성으로 규정한 것이고, 넷째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는 직업문식성을 사회의 본질적 성질이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현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섯째는 직업문식성을 개인의 자아실현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직업문식성은 텍스트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사회와 문화라는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형성되는 사회의 본질적 특성이자 개인의 능력이다. 이는 Brandt(1990)가 지적한 대로 글을 다루는 능력이 문식성이 아니라, ‘필자나 화자’로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문식성이라고 한 것과 맥이 통한다.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직업문식성은 개인의 인지는 물론이고 텍스트를 통한 이해와 표현, 사람을 통한 이해와 표현, 사회나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는 말하고 듣고 협의하는 음성 언어 행위도 앞에 이르는 통로 구실을 하므로 문식 행위가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고,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앎을 다루는 일이므로 이 또한 문식 행위이다.⁴⁾ 이미 문식화된 사회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문식성과 독립해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직업문식성을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나 전략, 태도, 지식을 의미한다.

직업문식성⁵⁾은 직무능력을 구성하는 중핵적 능력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문식 행위를 통해 직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직무능력은 직장인이 맡게 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문식성은 직무능력의 질과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자질이다.

직업문식성 개념은 직업을 수행하는 개인은 물론 대학, 기업, 정부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특히 개인은 직업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신의 업무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업무 능력 신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4) 할머니를 통해 옛이야기를 들은 아이와 전래동화집을 통해 옛이야기를 읽은 아이는 서로 다른 언어 사용 행위를 통해 이야기 문식성을 형성하였다. 앞의 아이는 듣기를 통해서, 뒤의 아이는 읽기를 통해 이야기 문식성을 형성한 것이다. 여기서 문식성은 언어 사용 행위를 통해 형성된 ‘앎’을 나타낸다. 그런데 문식성이라는 축어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듣기와 말하기’는 분명 문식성을 형성하는 사용 행위가 아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매개가 음성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사용 행위가 아닌, 개인의 인지나 사회에 형성되는 앎으로서의 문식성에 초점을 두고 언어 사용 행위를 바라보면 듣기와 말하기는 문식성을 구성하는 행위이다. 문식성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음성 언어의 사용이, 문자 언어의 사용과 더불어 문식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식 사회에서 듣기와 말하기는 문자 언어의 영향을 받아 문식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듣기와 말하기는 문식성을 촉진시키며, 문식성의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구실을 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외과 의사가, 읽은 내용을 말하는 행위를 문식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5) 개별 직무를 강조할 경우에는 직무문식성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직무문식성은 개별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식성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이다. 직업문식성은 직종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직업이라고 부르는 일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문식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개별 직장이나, 직무에 따라 직장문식성 또는 직무문식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직업문식성을 개발한다. 구직자에게는 직무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지침이 된다. 기업에게는 이윤 창출을 위한 사원들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아이디어가 된다. 대학에게는 대학생들의 직업문식성 교육을 위한 기초 아이디어가 된다. 정부는 직업문식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직업문식성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2. 직업문식성의 특성

직업문식성은 대상, 수준, 범주, 성향, 목적 등 기준이나 관점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문식성의 특성에 대한 논의도 개인의 능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직업문식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문식성은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직업문식성은 성인 문식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지만 직업 수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성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성인문식성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직업이 자아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참여 수단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성인문식성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직업문식성의 수준과 질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직업문식성은 기초 수준에서 고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질적 수준이 다양하다. 지하철 노선 읽기, 제품 설명서 읽기, 편지 쓰기, 메모하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직업문식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법전을 읽으면서 법률을 해석하거나 정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기업의 전략 회의, 협상하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직업문식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의 경우 각자 직업문식성의 수준이 다르다.

셋째, 직업문식성은 가정문식성이나 학교문식성의 범주와는 달리 사회문식성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가정과 학교도 사회와 소통하며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직업문식성은 사회의 요구, 기업의 요구, 소비자의 요구,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직장을 가진 개인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직업문식 행위 자체가 사회적 행위가 된다.

넷째, 직업문식성은 직무수행자의 기능적(機能的)인 측면이 반영된다. 직업문식성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능(機能)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의미한다. 직업문식성이 낮으면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를 맡을 수 없다. 특수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직업문식성을 높이려는 이유는 사회 안에서 직업문식성을 통해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 기업, 대학, 개인 모두 직업문식성을 통해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직업문식성을 발판으로 직장이라는 사회에 참여하면서 기능적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직업문식성은 비판성과 창의성을 지향한다. 현대 사회는 비판적, 창의적 직업문식성을 요구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재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생성하도록 요구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판적 직업문식성과 창의적 직업문식성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가 된다.

여섯째, 직업문식성은 개인의 생존 전략이다. 직업문식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도 있으며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취업을 위해서, 취업 후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직업문식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직업문식성은 생존문식성(이형래, 2005 : 60)이다.

직업문식성이 실현될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자발성’, ‘언어 사용 행위’, ‘의미 구성’, ‘매체’, ‘사회적 맥락’ 등이 상호작용한다. 이들 요소는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직업문식성 환경이나 상황, 사회적 맥락 속에 참여하려는 자발성은 직업문식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자발성이 미약한 공무원원은 행정 업무 지침을 상세하게 읽지 않는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직업문

식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 기꺼이 읽고, 듣고, 말하고, 쓰려는 자발적 태도가 공무원에게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문식성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사용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회의하기, 협상하기 능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영자나 전문적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직업문식성 행위로서의 듣기 말하기는 일상생활에서의 듣기 말하기와는 다르다. 직무와 관련된 매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직무 수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의미 구성 과정을 거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문서라는 매체와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은 공문서나 민원자료, 법률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미 구성 여부에 따라 수준과 질이 결정된다.

Ⅲ.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1. 9급 공무원의 일과

다음 표는 9급 공무원의 일과표(이형래, 2006 : 78~79)이다. 이 일과표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를 파악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공무원은 전자문서, 문서를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하고,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한다.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고 전화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주요 업무이다.

<표 1> 9급 공무원 일과의 예

시 간	주요 업무			상세 업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09:00	공문메일 확인 업무관련 프로그램실행, 민원응대	전자문서 확인, 이메일 확인, 민원관련 프로그램 실행	전자문서 수신분 확인, 공람분 확인, 이메일 확인, 민원 관련 프로그램 실행 후 민원 응대	전자메일 확인, 수신 문서 접수 후 처 리, 주민등록프로그램 실행 후 공지 사항 확인, G4C 전자정부 신청접수 건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 발 급, 호적등초본프로그램실행 후 호적 등초본 발급, 서울시 세무종합프로그 램에서 지방세과 세증명발급.
10:00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민원 응대	민원 응대	방문 민원 처리, 전화 상담(등초본 호 적민원, 지방세과세증명 신청민원), 전입 세대 열람 신청건 처리.
11:00	호적등초본 발급, 제증명발급		전화민원 상담	등초본 발급 및 전입세대열람 신청건 해결, 다음면동 일괄 등초본 발급하고 인증작업, 호적등본 신청건, G4C 신 청건 신청서 작성 후 해당처리 기관으 로 송부.
12: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00	등초본발급 지방세과세 증명발급	인감, 등초본 발급	인감, 등초본 발급	등초본 발급, 인감도장 변경하고 인감 발급함. 수신된 문서 확인하고 접수처 리, G4C민원신청 접수받아 G4C 화면 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처리 기관 으로 송부함, 전일 인증기일일정산분 고지서 발부 작업하고 우체국에 납부.
14:00	팩스민원 정산작업 후 공문 발송			일괄초본발급분 인증작업하고 민원인 에게 전달, G4C 신청건 신청서 작성 하고 처리 기관에 송부함, G4C 신청 분 팩스 송부 받아 민원인에게 유선으 로 연락취한 후 전달함, 교부한 후 G4C 화면에서 완료 처리함.
15:00	농지원부 민원 접수	농지원부 민원 처리		농지원부 신청민원 접수받아 해당 소 재지로 경작사실에 대한 조사외의 공 문 시행함, 세대 열람, 초본의뢰건 접 수받아 처리, 구등본 의뢰건 접수받아 구등본 착출 작업 후 세대주의 구등본 발급처리.

시 간	주요 업무			상세 업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6:00	호적등본발급, 등초본발급			전자문서에 공람문서 확인, 민원행정 프로그램에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건 처리, 등초본 발급, 호적등본 발급 요청건 발급하고 교부 처리함.
17:00	일일결산 작업	일일결산 작업	일일결산 작업	건축물 대장 등본 신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소재지 전달받아 등본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등초본, 세대열람건 접수받아 출력 후 교부처리, 수신문서 접수여부확인, 전자메일확인, 인증기일 정산 후 내역서 출력한 후 보관
18:00				

9급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편람을 주로 참고한다고 하였다. 직급에 따라 담당 업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업무 처리 원리나 원칙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급 기관에서 전달하는 문건이나 지침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료, 상급자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다.

2. 공무원의 직무와 직업문식성

9급 공무원의 직무는 매우 다양하다. 맡은 업무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9급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예를 보면 업무의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업무 가운데 직업문식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계획서 작성하기
- 결재받기

- 업무 협조하기
- 문서 다루기
- 업무 보고하기
- 업무 협의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민원 처리하기
- 출장 업무 수행하기
- 보고서 작성하기

여기서 제시한 10가지 업무는 9급 공무원의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9급 공무원의 일일 업무를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기록 정리한 내용이다. 이 자료를 통해 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9시에 전자 문서와 개인 메일을 확인합니다. 10시경에 전자 문서와 메일로 처리할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할 가정에 전화를 하여 방문 시간을 정합니다. 11시경에는 전자 문서로 구청 보고 사항 및 신규 신청자 재산조회 의뢰를 보건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조회 실시합니다. 오후 1시경에는 오전에 약속한 세대에 대한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애로 사항과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오후 2시 경에는 방문 결과 및 상담 내용을 보건복지프로그램 통합 조사표 상담란에 입력합니다. 3시경에는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한 답변 및 조사 내용을 처리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오후 4시경에는 새마을 부녀회 회의 자료를 만들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급여 및 각종 급여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고, 학비 지원 대상자를 학교별로 재학 조회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오후 5시경에는 전자 문서 수신을 확인하고 급한 사항을 바로 처리합니다. 오후 6시가 다 되면 월별 계획표를 보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기록합니다(이형태, 2006 : 85~86).

위에서 제시한 공무원의 직무를 바탕으로 공무원에서 요구되는 직업 문식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업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처리된다는 점이다. 이때, 공문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중심 매체가 된다. 둘째, 공무원은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협의회를 갖는다.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를 하지만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작성하는 읽기, 쓰기도 한다. 즉, 듣기와 말하기가 읽기, 쓰기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공무원에게는 결재의 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상급자, 동료, 하급자와의 관계, 결재의 절차와 그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결재를 통해 결정된 업무를 실행하기 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며 타 부서와의 협조 관계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IV.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문항 분석

9급 공무원의 국어 시험은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이 되는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 대상인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문제는 2006년 4월 시행한 중앙인사위원회 9급 행정·세무직 채용 시험 문제⁶⁾이다.

1. 한자 이해 능력 평가

한자 이해 능력과 한자어 이해 능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한자어 이해 능력은 공무원의 문서문식성(document literac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6) 시험문제 분석을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에 9급 공무원 기출 문제 자료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문제는행식 출제 방침에 의해 이미 시행된 시험 문항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중 공무원 수험서(김철민, 2007)의 문항을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항들은 수험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시한 문항 내용과 형식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서를 읽고 쓸 때 한자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한자어 이해 보다는 한자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은 문서를 한글로 작성하기 때문에 한자보다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다음 ㉠과 ㉡에 들어갈 ‘사전’의 한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국어사전(國語 ㉠)

백과사전(百科 ㉡)

- ㉠ ㉡
- ① 辭典 事典
- ③ 辭典 辭典

- ㉠ ㉡
- ② 事典 辭典
- ④ 事典 事典

이 문항은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의 의미나 ‘사전’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 아니라, ‘한자어’인 ‘사전’의 ‘한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한자어 이해가 아닌 한자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이다. 한자에 대한 지식은 한글 문서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직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한자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고 해서 문서를 잘 이해하고 처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2007년 1월부터 ㉠ 施行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취업 ㉡ 斡旋 업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맡고, 5월이나 내년 3월로 출국기간이 ㉢ 猶豫된 불법 체류자 중 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는 2년의 고용 허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조정실 ㉣ 主宰로 차관회의를 열어 그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① 施行(시행)
- ③ 猶豫(유예)

- ② 斡旋(주선)
- ④ 主宰(주재)

이 문항은 각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 아니라 한자를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한자 소리내어 읽기, 즉 한자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인 것이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문서문식성을 보면 공문서 읽기, 기안 읽기 및 작성하기, 법률문서 읽기, 주민 안내문 작성하기 및 읽기 등이 있다. 그런데 문서문식성은 한자 쓰기 능력보다는 문맥이나 상황에 맞고, 독자인 주민이나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서에 사용된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자의 음이나 한자의 표기를 묻는 문항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를 읽는 주체가 국민임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공무원의 갖추어야 할 바른 직업문식성 태도이다.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행정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 항목으로 나뉜다. 공무원은 정확한 언어 사용 능력이 요구되므로 어문 규정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다음 중 로마자 표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영동—Yeongdong
- ② 종로—Jongno
- ③ 신라—Silla
- ④ 여의도—Yeoido

한글의 로마자 표기 규정에 대한 이해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는 기초 지식이다.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에 대한 정확한 기초 표기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임용 후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형성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밑줄 친 ㉠~㉤ 중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 사글셋방에 살고 있는 철수 어머니는 다음 날 ㉡ 셋째 장날 ㉢ 수뽕지를 팔아
㉣ 가스렌지를 사서 친정 어머니 회갑 잔치에 가기로 하였다.

- ① ㉠ 사글셋방
- ② ㉡ 셋째
- ③ ㉢ 수뽕지
- ④ ㉣ 가스렌지

자음의 발음변화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거 시적 관점에서 보면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문항이다. 공무 원도 외래어를 문서에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며, 우리말과 글에 대한 정확한 발음과 표기법, 띄어쓰기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밑줄 친 것들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말이다. 괄호 안의 수량을 모 두 합하면 얼마인가?

- | | |
|----------------------|---------------------|
| • 고등어 한 손-() 마리 | • 한약 한 제-() 첩 |
| • 바늘 한 썸-() 개 | • 김 한 톳-() 장 |
| • 배추 한 접-() 포기 | • 북어 한 패-() 마리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업문식성에는 우리말에 대한 기초 지식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말에 대한 기초 지식 이해 정도를 평가하더라도 맥락을 공무원의 실제 업무에 두어야 하는데 위의 문항들은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항은 초등학교 국어 지식 시험과 다르지 않다. 이런 지식을 학습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할 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

3. 어휘

공무원은 풍부한 어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민원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대해야 하며 인터넷 민원 문제를 글로 써서 해결해야 하고, 문서를 이해해야 하고, 문서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력은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민원 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의 경우 대면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절한 어휘의 사용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너비 : 사고나 나서 경찰이 도로의 너비를 재고 있다.
넓이 : 그 농장은 넓이가 3만 평이나 된다.
- ② 한참 : 담장을 따라 한참을 가니 그 집이 나왔다.
한창 : 요즘 놀이 공원은 사람들로 한창 붐빈다.
- ③ 있다가 : 지금은 바쁘니까 있다가 단들이 있을 때 얘기하자.
이따가 : 조금만 누워 이따가 일어날게.
- ④ 찌 : 그는 사과를 껍질찌 먹어버렸다.
채 : 벽에 기대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문항에서 묻고 있는 어휘는 공무원이 업무 공간, 업무 상황과 관련된

실제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답지로 사용된 문장은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텍스트와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를 평가 텍스트로 사용해야 한다.

4. 국어순화

국어순화의 영역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말을 부르기 좋고, 듣기 좋도록 다듬는 일이 그 첫째 일이다. 둘째는 외래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바꾸는 일이다. 셋째는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바꾸는 일이며, 넷째는 틀린 말을 표준어 및 맞춤법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순화와 관련된 문항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평가 내용으로 타당하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같은 뜻의 다른 용어로 순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비상변은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평상시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 비상 버튼, 비상 밸브
- ② 전동 스쿠터 이용자가 이 리프트를 타설 때에는 탑승 전에 안전 고리를 스쿠터 앞에 체결하시고 안전 로프를 허리에 매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 ③ 규정을 어기고 경비를 과다 지출한 시말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위서
- ④ 해당 부서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이달 말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비상변은 생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러나 ‘비상변’과 ‘변’이 ‘밸브’를 지칭하는 북한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상변’의 사용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다.⁷⁾

국어순화와 관련된 문항의 수가 적다는 점은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와 밀착되어 실제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평가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문항의 타당도도 낮다.

5. 문장 구조와 어법, 의미 해석

공무원은 비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술관계나 어휘의 적절한 사용, 중의문이나 모호문의 사용,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은 문장 등을 통해 비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문법에 알맞은 정확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 국어 시험 문항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항은 이러한 의의가 있다.

다음 중 문장 구조와 어법이 모두 올바른 것은?

- ①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현재도 사고 지역 주변 30km 내에서의 재거주(再居住)는 주변에 방사선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 지하수의 오염 문제 등으로 아직도 어려운 상태이다.
- ② 근대화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국주의에 의한 예측성만 깊어져 갔다.

- 7) ‘체결’은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체결’은 엮어서 맺음을 이르는 말이다. ‘엮다’가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의미 구성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다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말로 바꾸었다. ‘시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를 이르는 말인데, 이 말은 ‘경위서’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경위서’가 일이 벌어진 경위를 적은 서류임을 감안할 때, ‘경위서’라는 말은 경위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정적으로 더 배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은 기본이 되는 계획이나 그런 설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조감도가 아니라 ‘기본 설계’나 ‘종합 계획’으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감도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상태의 그림이나 지도를 이르는 말이다.

- ③ 대도시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상업·교육 등의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농어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 ④ 여름에 지내는 마룻방과 대청은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겨울에 외풍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병풍을 쳤다.

공무원은 명료한 글쓰기를 해야 한다. 오류가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비판적 관점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위의 문장들은 겹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들이다. 그런데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혼재되어 있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방사선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는 ‘주변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어’ 등과 같이 대등하게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 문서를 구성하는 것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②번 문장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체가 근대화인데, ‘근대화’는 이미 근대적인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어떻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근대화가 제국주의에 의해 그 예측성만 깊어져 갔다고 진술하여 역시 주술 관계에서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번의 경우, 대도시에 공장이 많이 들어선다는 내용은 의미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문두의 ‘대도시’와 문미의 ‘도시’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보면 의미상으로 문제가 있으나 어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정답으로 판단된다. ④번은 문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주어와 이어지는 뒷부분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이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이라면 마룻방과 대청과 대비되는 또 다른 방이 주어가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그 주어에 대한 서술어도 필요하다.

다음 문장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은?

- ① 저희 교육원은 가장 정확한 수험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제공해 드립니다.

- ② 김 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의술을 베풀으로써 사회봉사를 실천합니다.
- ③ 태풍 ‘나비’로 인해 경기 일대의 태풍주의보가 호우주의보로 대체할 전망이다.
- ④ 이번 회담 결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①번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호응 관계에 있지만 목적어인 ‘수험정보와 높은 적중률’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수험정보’와 대등한 수준의 정보, 예를 들어 ‘가장 최신의 수험정보’나 ‘기록적인 합격률들’을 원하는 것이지 적중률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중요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③번 문장에서는 주어인 ‘태풍주의보’와 호응되는 ‘발효되다’, ‘내려지다’ 등과 같은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대체되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어를 사람으로 파악하여 진술하였다. 주어가 사람이 된다면 조사를 ‘가’에서 ‘를’로 바꾸어야 한다.

‘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예상되다’라는 말 안에 이 의미가 들어 있다.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둔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말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예상하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예상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다음은 재난 상황에 직면한 공무원이 방송한 내용이다. 어법에 맞고 의미가 분명한 것은?

- ① 사람들이 위험한 건물에서 대피해야 하므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시오.
- ② 특히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빵과 우유 일만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 ③ 구급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잠시 주차중인 차량과 운전자들에게 방송을 통해 협조를 구해주시시오.
- ④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호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①~③답지를 보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치안유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치안유지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준다는 것과 이들 비상식량이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 주차중인 차량에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어법에도 맞지 않다.

이들 예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평가 장면은 공무원의 실제 업무를 근거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이 문항은 그러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음 중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 ①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의 귀와 비슷하다.
- ② 가을엔 쪽빛 하늘과 황금빛 들판이 맞닿는다.
- ③ 나는 눈이 큰 진영이의 언니를 선생님께 소개해 드렸다.
- ④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용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눈이 크다’라는 절을 안고 있는 것이 진영이인지, 진영이의 언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문장이다. 이 문항은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할 때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어 시험을 통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초문식성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다. 가장 큰 요인은 이들 평가 문항이 실제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공무원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6. 표준 발음

표준 발음법을 묻는 문항은 공무원의 정확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우리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 실현되는데 이런 원리를 평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국어의 발음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국어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일곱 개뿐이다. 따라서 음절 끝에 이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이러한 음운 교체 현상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남, нат, 낫, 낫, 낫, 낫’과 같은 단어들을 읽어 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남]이라고 발음한다. ‘꽃 위 [꼬위]’처럼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위의 규칙들을 따른다. 그러나 다시 이 단어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낫으로 [나스리]’와 같이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들을 살려낸다.

- ① 무릎이 [무르피]
- ② 늪 앞 [느남]
- ③ 흙 위 [흐키]
- ④ 몇 월 [머월]

‘무릎이’를 [무르피]로 발음하는 것은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규칙을 적용한 예가 된다. 즉, 이 규정은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

음하는 연음(連音)을 뜻하는 것이다.

‘표’이 [ㅂ]으로, ‘러’이 ‘ㄹ’으로, ‘츠’이 [ㅈ]으로 발음되는 예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경우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어학 지식에 대한 이해 능력보다 문서를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이 읽기에 한정되어 시행되므로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7. 서술 방식

말이나 글을 진술할 때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설명의 방법으로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등이 있다. 그리고 서술자의 목적에 따라 분석, 묘사,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등의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서술 방식에 대한 문항을 출제한 것은 ‘문서 작성하기’가 공무원의 기초 업무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진술 방식이 유사한 것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이다. 모든 기호가 그렇듯이, 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형식’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언어에서의 내용은 의미이며, 형식은 음성이다. 이러한 의미와 음성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언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음성만 있고 의미가 없거나, 의미는 없고 의미만 있다면, 언어로서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①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 ②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③ 언어의 습득은 인종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 ④ 언어기호란 하나의 언어 사회에서 어떤 개념을 특정한 소리를 사용하여 지시하지는 약속이다.

밑줄 친 문장은 서술 방식이 ‘정의’에 해당한다.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술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나’의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등과 같은 서술 방식에 대한 지식 평가도 민원인이라는 일반 국민들을 독자로 고려하는 글쓰기 기능이나 전략에 대한 이해와 실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개별 지식 평가로 전략할 수 있다.

9급 공무원은 기획문서보다는 민원 문서를 자주 작성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 중심에서 서술하는 방식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표현하기에 대한 평가 문항이 출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주제 파악하기

독해 능력은 직업문식성을 구성하는 요소다. 따라서 독해 능력 평가는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내용으로 필수적이다. 독해 능력에 대한 문항은 여러 하위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어휘 능력, 내용 파악 능력, 추론 능력, 평가 및 감상 능력 등 평가자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세부 항목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연암(阮巖) 박지원(朴趾源)은 너무나 유명한 영·정조 시대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文章)이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패관기서(裨官奇書)를 따르고 고문(古文)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古文派)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 (나)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학대(自己虐待)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다는 것이 국수주의(國粹主義)나 배타주의(排他主義)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묵수(墨守)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히 외래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 ① 민족 문화 전통 계승의 정당성
- ② 민족 문화 전통 계승의 부당성
- ③ 외래 문화 수용의 부당성
- ④ 외래 문화 수용의 정당성

(나) 글은 일관성이 미흡하고, 통일성도 부족하다. 중심 내용은 민족 문화 전통 계승인데, 외래문화의 수용 문제를 논리적으로 안고 있지 않다.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에서도 응집성이 떨어진다. 수험자의 기억에 의존해 지문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글의 논지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외래문화 수용’에 대해 글의 끝 부분에서 언급함으로써 글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주제 파악 능력 평가는 독해 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제 파악하기를 통해 종합적 독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문이 매우 짧아서 고차적인 수준의 독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암 박지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연암은 당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
- ②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 ③ 인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그의 문학은 당시에 이목을 끌지 못했다.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항이다.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독해 능력의 구성 요소다. 따라서 이 문항은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접하는 문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문으로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공무원은 민원인의 글, 공문서, 법률 문서 등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항 지문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상황과 거리가 멀다.

다음은 글의 순서를 정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글을 읽고, 글의 흐름에 맞게 순서를 정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독해 능력 중 추론하기 능력과 관계가 있다.

다음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글의 일부를 손질한 것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열한 것은?

- (가) 노인들의 불만은 젊은이들은 일을 여기저기 벌여 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할 일을 혼동하는가 하면, 일손을 모아서 함께 해야 할 것은 제 각각 따로따로 벌여 놓기 때문에 부산하기만 하고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 (나) 농사일은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노동입니다. 일의 선후가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인, 이를테면 벼씨의 일생이면서 그 우주를 가꾸는 일입니다. 부품을 분업 생산하여 조립, 완성하는 공업 노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다) 노소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 노인들은 흔히 젊은이에 대하여 일정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젊은이들의 일하는 자세, 일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 (라) 젊은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언젠가 좌상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한마디로 농사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간결하고 정곡을 찌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마) 요즘 젊은이들은 노동을 수고스러움, 즉 귀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비하여, 노인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생명을 키우는 높은 뜻을 부여합니다. 요컨대, 젊은이들은 노동을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소비, 에너지의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노동을 생산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의 사고와 정면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지문은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다. 공무원의 추론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에서 소통되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추론하기 능력이 공무원이 실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문서문식성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실제 텍스트에는 독자가 새롭게 해석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문서를 읽을 때, 용어나 업무 지식에 대한 배경 지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9. 언어 예절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국어 사용 능력 가운데 언어 예절이 있다. 민원인을 자주 접하게 되는 9급 공무원의 말하기나 듣기 예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9급 공무원의 직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민을 직접 만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③번의 경우, 문장에서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語法)을 다루고 있다. 압존법에 의하면 청자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를 높일 수 없다.

다음 중 우리말의 언어예절과 맞지 않은 것은?

- ①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깜박 딴 생각을 하느라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 ② 나, 아버지 대학후반데, 저녁에 아버지 들어오시면 내일 오후 여섯 시에 만나 식당에서 동창회가 있다고 꼭 전해주게.
- ③ 민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친구 영훈이 엄마입니다. 민수 엄마 댁에 계세요?
- ④ 누나,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았는데 며칠 후면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 섭섭해.

10. 글쓰기 지식

글쓰기는 문서를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직업문식성이다. 수험자의 수가 많아 실제적인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지는 못하지만 쓰기 지식 이해 능력은 평가하고 있다. 다음 문항은 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에 대해 묻고 있다.

‘양극화 해소(兩極化解消)’라는 화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주제와 목적을 정한다.
- ② 구체적인 표현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수사법을 정한다.
- ③ 생성한 아이디어를 글의 조직 원리에 맞게 배열한다.
- ④ 상황과 독자를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선택한다.

쓰기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독자인 주민이나 상급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글을 쓰기 어렵다. 글을 쓰기 전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아이디어를 조직하며 글을 쓴 후에 글이나 쓰기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기능, 지식, 태도가 필요하다.

11. 문학 이해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문학 작품 감상 문항의 출제 빈도가 높다. 현대 문학은 물론이고 고전문학까지 출제 대상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문학 작품 감상 평가는 공무원 국어 시험 문항으로 타당하지 않다.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이 공무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문학 영역 이외의 영역, 예를 들어 듣기 과정, 말하기 과정, 읽기 과정, 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영역이 평가 내용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 감상 중심의 9급 공무원 국어 평가는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 영역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출제 문항 수를 조절해야 한다.

다음 시의 화자가 상황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로 알맞은 것은?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을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下直)했다.

- ① 담담한 어조로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
- ② 절망적 심정으로 대상을 원망하고 있다.
- ③ 감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 ④ 감정을 토로하며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다음은 관동별곡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이 묘사하는 대상은?

은은 7튼 무지개, 玉옥, 7튼 龍蹄의 소리, 섯돌며 뿜는 소리 | 十십리리의 즈자시
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고전 문학 작품 감상 평가 문항을 출제한 이유는 공무원에게 문화에 대한 문식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고객으로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최종 행정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행정가로서 나랏일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라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사를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선정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감상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고전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고차적인 사고력이나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20문항 중 고전 문학 감상 문항이 2문항으로 10%를 차지하지만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을 공무원 직업 문식성 평가로 간주할 때, 그 수도 많고 타당하지 않다.

V.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에 관한 논의

9급 공무원의 국어 시험은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보다는 국어지식이나 문학 지식 등을 통해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평가를 통해 검증받는 능력이 실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직업문식성과의 상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확한 국어 사용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맞춤법이나 표준어, 한자어 등을 평가 내용으로 설정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평가 내용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능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동적으로 터득하게 된다는 암묵적 약속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비타당성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공무원 국어 시험은 선발의 잣대나 기준의 구실만을 할뿐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직업문식성 평가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험자에게는 물론 정부에게도 큰 손실이다. 수험자가 시험 대비를 위해 준비하는 학습 과정이 공무원의 직무와 괴리되어 있다는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원인은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에 대한 관점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어 시험을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언어 사용 능력 평가인 직업문식성 평가가 아닌, 선발을 위한 교과목의 하나로 인식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앞에서 분석한 공무원의 직무를 보면 공무원은 언어 행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국어 사용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어 시험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실질적인 국어 사용 능력, 즉 직업문식성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국어 시험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국어 사용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직업문식성 평가 관점이다. 직업문식성이 직무를 수행하

는 데 요구되는 국어 사용 능력이라고 할 때, 국어 시험은 바로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9급 공무원의 업무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이러한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직업문식성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국어 사용 능력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의 국어 시험은 9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직업문식성 평가의 관점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문항 분석 결과,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한자 중심의 국어 능력 평가

한자 활용 능력을 국어 시험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 한자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문서에는 난해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난해한 어휘들은 대부분 한자어들이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신념이나 혁신 의지가 담긴 다양한 정책 용어들이 쏟아진다. 이들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로 구성된 신조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오해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 능력과 국어 어휘에 대한 능력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자어가 우리 국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한자어가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자 사용 능력,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자어가 많은 문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문서에는 한자를 단독 표기하거나 병기해서 기록하지 않

는다. 한자어의 한자 표기⁸⁾에 대한 평가보다는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평가이다.

국어 능력 속에는 어휘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풍부한 어휘를 직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업무 성과를 더 잘 낸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한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자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자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우리말로 적절히 바꾸는 태도가 오히려 필요하다.

2. 공문서 문식성에 대한 평가 항목 부재

공문서를 다루는 일을 주로 하는 공무원의 임용 국어 시험에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평가 장면으로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국어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 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지식 평가는 공문서 문식성과 연계할 수 있다. 공문서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그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거나 직접 구성하게 할 수 있다.

3. 문항의 실제성 미흡

9급 공무원 국어 시험 문항은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 언어 예절이나 외래어 표기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은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미약하다.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8) 2006년 9월 24일 시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어 시험에는 ‘온고지신’의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한자 표기를 묻는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업문식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 평가 문항을 만들 때에도 실제성을 고려한 지문을 활용해야 하지만 그런 지문은 없다.

다음 지문은 실제 공문서의 일부이다. 공문서를 평가 지문으로 활용할 경우, 다양한 문항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춤법이나 어휘의 의미, 문장의 호응관계, 어법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실제로 아래의 두 문장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정부는 복잡한 정부조직 및 행정전화번호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전화하여야 하는지 몰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서비스를 금년 5월 10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새로운 민원행정서비스를 가까이서 더 많이 누리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불임 알림장을 송부한 바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배부시 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어 지식과 문학 문항의 수 조절 불균형

국어지식 문항이 많고 문학 감상과 고전 문학 감상 문항도 많다. 공무원의 직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항의 수를 늘려야 한다.

국문학 이론이나 문학 작품 감상을 위한 평가 문항은 공무원의 직무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문학 작품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의 일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보면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문학 작품과 같은 정서에 호소하는 말이나 글보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전달하거나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실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 문항 부재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 직업 문식성 평가로서의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맡았을 때 요구되는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언어 예절도 민원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글쓰기도 보고서나 기안문 작성하기, 주민 안내문이나 민원인의 답글을 쓰는 상황이 드러난 텍스트를 제시해야 한다.

읽기 평가도 예외는 아니다. 읽기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자주 접하게 되는 문서나 행정 정보와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텍스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데 타당하지 않다.

6. 읽기 중심의 평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읽기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하거나 안내해야 하고, 민원인을 설득해야 한다. 서류를 읽고,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읽기 중심의 평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쓰기 과정, 고쳐 쓰기 방법 등에 관한 문항, 민원인을 고려한 화법 등은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주로 작성하는 문서들을 예시 자료로 제시한 다음 고쳐 쓰기에 관한 문항을 출제할 수도 있다.

7. 사고력 평가와 거리가 먼 평가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모든 문항이 선택형 문항이다. 이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연간 12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선발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택형 문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항의 수도 적어 사고력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9급 공무원 국어 시험도 공직적성평가(PSAT)와 같이 고차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국어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 사고력 평가를 하기에 제한적인 면도 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분석하고, 통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완성된 텍스트를 지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짧은 지문을 통해 국어 능력을 평가할 경우 국어 시험을 지식이나 암기 능력 평가로 오인할 수 있다. 짧은 지문으로는 제대로 된 능력 평가(power evaluation)를 할 수 없다. 일반 행정직의 경우 1차 시험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2차 시험에서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평가한다. 국어 시험은 형식적으로는 5개목 중의 하나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문항으로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때,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맞춤법, 표준어 등과 같은 국어 규범과 국어 지식 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공문서 다루기 기능과 관련 있는 직업문식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문법 지식이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영역’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 사고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문식성 평가인 공무원 국어 시험은 공무원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험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직업문식성을 충실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관련 국어 능력을 ‘직업문식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직업문식성의 개념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VI. 결론

요즘, 문식성의 특성에 관한 개념은 세계적으로 두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문식성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정부는 국민들이 문식성을 갖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는 문식성이 개인과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Levine, 1986 : 155).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발전,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도 사회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 발전의 위한 동맥이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문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의 업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지는 데 이들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 시험은 개선되어야 한다.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문법 지식, 문학 감상 문항이 대부분이다. 공무원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사용 행위를 통합적으로 수행

한다. 따라서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이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으로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를 바탕으로 문항 출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직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 있는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식,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사고력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항 수를 늘리고, 긴 지문을 활용한 종합적인 국어 능력, 예를 들어, 분석, 비판, 종합, 평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 문항의 실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문에 제시되는 맥락은 실제 공무 수행 상황으로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문법 지식에 관한 수준, 범위,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9급 공무원은 행정 업무의 최후 실행자이므로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문법의 수준, 범위, 내용 등을 조사 연구하여 문항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본 논문은 2008. 2. 24. 투고되었으며, 2008. 3. 4.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4),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개선 방안 연구.
- 김철민(2007), 국어 기출문제 해설집, 서울고시각, 2~8.
- 노명완, 윤준채, 정혜승, 이형래, 이천희, 서혁, 김라연, 최영환, 박정진, 이순영, 옥현진, 조병영(2005) 독서-그 개념과, 지도 그리고 평가, 한우리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자료집, 고려대학교 문식성 연구회, ‘독서와 직업문식성’, 55~69.
- 노명완, 이형래(2005) 직업문식성 연구, 독서연구 제13호, 한국독서학회, 61~100.
- 이천희(2007) 읽과 언어의 상호작용과 글깨치기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형래(2005) 문식성 교육의 확장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18호, 한국어교육학회, 249~282.
- 이형래(2006)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형래(2007) 직장에서 요구되는 국어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국어교육 122호, 한국어교육학회, 85~115.
- Harris, T. L. & Hodges, R. E(1995,) *The Literacy Dictionary*, 140~143.
- Kearn, P., Papadopoulos, G.(2000), *Building a learning and training culture* : The experience of five OECD countries, NCVER, adelaide, 35.
- Levine Kenneth(1986), *The social context of literacy*,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 kegan Paul, 150~182.

<초록>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분석 연구

이형래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의 업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지는 데 이들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 시험은 개선되어야 한다.

9급 공무원 채용 국어 시험은 문법 지식, 문학 감상 문항이 대부분이다. 공무원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사용 행위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이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으로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둘째, 지식,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사고력 평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문항 수를 늘리고, 긴 지문을 활용한 종합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셋째, 실제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확한 언어 사용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에게 필요한 문법 지식에 관한 수준, 범위,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문식성, 직업문식성, 직업문식성 평가,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Abstract>

A Study of Analysis of the Selection Exam
for Grade 9 as Job Literacy Evaluation

Lee, Hyeong-ra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selection exam for civil servants as job literacy eval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Job literacy which is a type of adult literacy directly related to the ability to effectively do one's duties.

The civil services require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that means ability of job liter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election exam for Grade 9, the selection exam for Grade 9 did not appropriately evaluate the required job literacy. It asked for fragmentary knowledge based on memorization skills and knowledge.

Exam for civil servants needs to evaluate job literacy of the authentic abilities required in the workplace. It meant that the current exam for the civil servants did not work for selecting the most qualified civil servants. Therefore the current Hanja-centered exam, knowledge-centered exam of the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 for the civil servants to evaluate job literacy for the civil servants is in need of changing extensively

【Key words】 Literacy, job literacy, job literacy evaluation, the selection exam for civil servants

【토론문】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 분석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정진(고려대 강사)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한 방송에서 했던 대푯집에서의 토론이 생각난다. 참가자들은 각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그 자리는 술 한 잔씩 하면서 진술한 얘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였다. 자기 캠프의 후보에 대해 아쉬운 점 한 가지씩을 얘기하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한 참가자는 본인과 후보의 생각이 떨어낼 것도 첨가할 것도 없이 일치한다며 자신 있게 대답하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의 내 입장이 그렇다. 발표자와 떨어낼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이 생각이 일치한다. 직업문식성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공무원이나 회사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직무 능력이라는 것,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그들에게 앞으로 필요한 문식성을 예측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에서 그렇다.

직업문식성은 그야말로 새로운 연구 분야이다. 사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직업 교육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학교를 다니는 주목적이 사회 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이 점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렇다면 직업문식성이야 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직업문식성 분야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안내해 준 발표자에게 감사한다. 동시에 우리의 이해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문식성의 개념과 관련된 질문이다. 토론자가 항상 고민하고 있

는 부분인데 듣기와 말하기도 문식성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식성(文識性)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물에 던져진 조약돌로 일어나는 파장은 넓어질수록 그 의미를 상실해 간다. 문식성이 글을 다루는 능력 이상으로 확장될 때 글을 다루는 능력이라는 본질은 혹시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다. 물론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읽거나 쓰기 교육은 말하거나 듣기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과학이나 수학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학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하기와 듣기가 과학 활동인 것처럼, 읽기와 쓰기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하기와 듣기 역시 읽기와 쓰기, 즉 문식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문식성의 개념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식성이라는 개념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다른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 토론자를 항상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다(각주 3에 언급된 「문식성 사전」의 문식성에 대한 개념은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확장적이다. 모든 것이 문식성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일부에서는 문식성을 ‘素養’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인데, 문식성이 ‘직업, 직무, 성인, 학교, 가정, 사회, 생존, 문서’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합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 용어의 교육적 가능성(창의적이고 응용적인)을 보여줌과 동시에 극명한 한계(비체계적이고 모호한)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결국 개념상으로만 보면, 개인의 문식성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면 서도 충분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즉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문식성 교육에서 모두 다루어야 하고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각 교과교육의 개념을 모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는 9급 공무원 임용 시험 문항 분석을 통해 주장하는 발표자의 생각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개별 문항 분석을 통해서든 어문 규정(로마자 표기 규정, 맞춤법 규정, 발음 규정 등), 국어 순화 등은

공무원의 필수적인 기초 지식이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결론에서는 그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대체로 평가 영역으로는 적당하나 ‘실제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은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문항을 분석하는데 다소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토론자가 분석 내용을 잘못 읽어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문항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실제성’에 대한 논의를 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짜를 통해 이루어진다(‘가짜’라는 표현이 부적절할지도 모르지만, 토론자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 주기도 한다.).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진리를 모방(교실 안의 세트)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방의 모방(그림, 사진, 작품 등)을 통하여 표현하고 소통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삶의 실재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더구나 시험이라는 틀 속에 실재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현실을 생각해 보아도,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내용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룬다는 것이다(초등학교에서 하는 병원이거나 시장 놀이, 중학교에서 하는 영어 회화 등을 생각해 보라). 이런 측면에서 ‘실제성’이 무엇이고, 교육에서(특히 평가에서) 실제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시험이 ‘실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